

愚潭 丁時翰의 『山中日記』 研究

— 경남 함양 유람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

손 유 경 *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咸陽 滯留 期間이 갖는 意味 |
| II. 丁時翰 遊山愛好的 背景 | IV. 맺는 말 |

<국문 초록>

愚潭 丁時翰(1625~1707)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집안 대대로 벼슬을 해온 서울의 양반 명문가 출신이다. 우담 정시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며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집안에 보관해 두었던 여러 문학 작품이 산일되었다는 점과 정시한의 글 짓는 성향이 학문을 강론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정시한의 기행집인 『山中日記』라는 텍스트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텍스트가 정시한에 대한 연구를 보다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시한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시한은 “산수를 좋아하여 팔방에 두루 다녔다.[喜山水遍遊八方]”라고 하였는데, 이 『산중일기』는 그가 늘그막에 기획한 네 차례의 산행에 대한 하루하루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을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시한의 평범한 일상을 엿볼 수 있었고 사상가로서의 정시한이 아닌 또 다른 작가의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본고는 우담 정시한에게 ‘사는 곳’이 아닌 ‘떠나온 곳’이 갖는 의미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평생을 강원도 원주를 근거지로 하여 살았던 정시한에게 산행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중일기』에 담겨 있는 네 차례의 산행 중에 1차 여행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정시한의 나이 예순 두 살 때 행해진 이 여행은 그가 기획한 여행 중 가장 긴 기간에 해당되는 여행이었는데, 그 중 6개월 가량을 경상남도 함양지역에서 체류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산중일기』 안에 보이는 함양 체류 기록만을 발췌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시한에게 함양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지를 찾아보았으며, 더 나아가 정시한이 山水癖을 갖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함양, 우담, 정시한, 산중일기, 산수벽

I. 들어가며

愚潭 丁時翰(1625~1707)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字는 君翊, 號는 愚潭이다. 부친 丁彦璜(1597~1672)이 관찰사를 지내는 등 집안 대대로 벼슬을 해온 서울의 양반 명문가 출신이다. 서울 회현동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25세에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원주 法泉으로 낙향하였고 그 때부터 줄곧 원주에서 지냈다.¹⁾ 정시한은 학행

1) 정시한은 25세 때 원주 법천에 터를 잡은 후 83세로卒할 때까지 줄곧 강원도 원주 지역을 근거지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우담 정시한의 逝世 300주년을 맞아 한국철학사연구회 주최하고 연세대 근대학연구소가 주관한 학술대회가 <우담 정시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원주시 지원으로 『愚潭 丁時翰 研究』와 『丁時翰 性理學 研究』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렇게 우담 정시한은 원주시에서 강원도 정신의 맥을 잇는 학자로 발굴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나가고 있는 학자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curator98@hanmail.net

을 인정받아 모두 열여섯 차례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부모 봉양과 학문 수양 등을 이유로 모두 사양하고 평생 벼슬길을 멀리하였던 인물이다. 실록에서는 그에 대해

고매한 기풍과 순박한 기질이 있었으며 돈독한 효도는 천성에 근본하였다. (중략) 몸소 농사지어 (아버이를) 봉양하면서 맛있는 음식 준비를 극진히 하였다. 산수를 좋아하여 팔방에 두루 다녔는데, 어머니가 늙으니 마침내 문을 닫고 들어앉아 출입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小學』으로 몸을 다스렸으니 窮理와 格物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²⁾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지극한 효성으로 당대에 이름이 났었음을 알 수 있다.

우담 정시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사상적인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크다. 그는 近畿 嶺南學派에 속하는 유학자로 퇴계설을 옹호하면서 율곡의 학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리설에 있어서 理와 氣의 관계를 주인과 보좌의 개념으로 파악했던 理主氣補說에 따라 理氣四七說을 전개하였다. 또한 1700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문인인 李栻(1659~1729)과 人性和 物性的 同異문제에 관한 논변을 벌이면서 人物性相異論의 입장을 전개하였는데, 그 과정이 「與 李敬叔」 또는 「答李敬叔」의 제목으로 그의 문집 『愚潭集』 4권~5권에 걸쳐 31편의 편지로 남아 있다.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그의 理氣四七論은 주자와 퇴계를 기준 근거로 삼되 분석이 정미하여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에까지 들어갔다.”³⁾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정시한의 사상 체계를 밝히고 철학사적 지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방

2) 『肅宗實錄補闕正誤』 卷17, 「1686年 1月 10日條」, “有高風淳質, 篤孝根性 … 躬耕以養, 備極甘旨, 喜山水遍遊八方, 母老遂閉門不出, 專用小學治身, 而窮格非其長”

3)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281) 卷17, 「旁親遺事」, p.368d, “其論理氣四七之辨 一以紫陽退溪爲準則 剖折精微 細入秋毫”

향으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⁴⁾

그에 반해 다른 방면으로의 연구 접근-특히 문학적 접근-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집안에 보관해 두었던 여러 문학 작품이 산일되었다는 점이다. 『愚潭集』 해제를 참고하면 家藏되어 있던 정시한의 글들은 손자 丁思愼이 善山府使 재임 시(1714~1716) 遺集 2권, 附錄 2권 합 4권으로 편차하여 申益愧에게 발문을 부탁하는 등 간행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 申益愧의 『克齋集』에 당시 지었던 발문이 전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우담 정시한 선생의 『遺集』 두 권과 『附錄』 두 권, 도합 네 권을 실었다. 선생의 손자인 선산 부사(丁思愼)가 나에게 보내어 소개하고는 跋文을 부탁하였다. **선생의 글이 이것이 전부라 아니겠지만**, 그의 평생의 학문의 본말과 출처의 큰 뜻은 이것만 보아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⁶⁾

해제의 내용과 신익황의 발문을 참고하면 정시한이 지은 여러 글들은 집안에 소장되어 전해왔으나, 여러 번의 간행 사업이 무산되었거나, 간행 후 문집이 유실되어서⁷⁾ 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 주1)에서 언급한 두 저서에 그 연구 성과들이 집약되어 담겨 있으며, 이 외에도 유명종, 「우담 정시한의 리주기보설과 인물성동이론」, 『한국사상대계』 6(성리사상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김낙진, 「정시한과 이석의 리체용론 연구」,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5.; 리기용, 「우담 정시한의 철학 연구」, 『매지논총』 17집,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2000.; 이동희, 「우담 정시한의 성리설에 대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6집, 한국인물사연구소, 2006.; 김경호, 「우담의 호발설 옹호와 율곡 비판」, 『한국철학논집』 22,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이상익,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과 그 비판」, 『퇴계학보』 124집, 퇴계학연구원, 2008. 등 우담의 철학 담론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당하다.

5) 한국고전종합DB, 『愚潭集』 해제 참고.

6) 申益愧, 『克齋集』(『韓國文集叢刊』 185) 卷10, 「愚潭丁先生遺卷跋」, p.472b, “右 愚潭丁先生遺集二卷 附錄二卷合四卷 先生之孫善山使君所寄示 且命爲跋者也 **先生之書 計不止此** 而其平生爲學本末及出處大致 於此已可窺見矣”

자료의 부족은 그에 대한 연구의 포커스를 ‘문학’에 맞추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시한이 애당초 문학작품을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선생[정시한]은 평생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말로 드러내는 것이 이와 같았다. 선생이 항상 말하기를, (시라는 것은) 시를 지을 당 시에는 어떤 소견이 있는 것 같지만 후에 생각해보면 모두 공허한 경지에 흘러 들어간 것들이다.⁸⁾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시한은 평소 시 짓기를 즐긴 문인이 아니었다. 현전하는 시 작품이 칠언절구 4首밖에 없다는 점⁹⁾ 역시 이러한 성향을 뒷받침해준다. 『우담집』에 전하는 글들도 사직소와 성리학 적 견해를 논한 각종 편지와 산문이 전부이다. 기존 연구에서 우담 정시한을 문학가 보다는 학자, 사상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시한에 대한 연구는 그의 성리학 적 사상 체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데 선행 연구를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기존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하는 일군의 연구 성과들이 보이는데, 곧 정시한의 기행집인 『山中日記』를 중심 텍스트로 삼은 연구 성과들이다.¹⁰⁾ 앞서 언급한 『실록』의 서

7) 해제의 내용과 여러 주변 자료들을 참고할 때, 정시한의 문집은 1708년에 한 번, 1714년~1716년 사이에 한 번, 최소 두 번 이상의 간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전하지 않는다.

8) 『愚潭集』 卷11, 『附錄』, 「年譜」, p.406a, “先生平生不喜作詩 而因有所省覺發於言志者如此 先生常言其時雖似有所見 而後來思之 皆流於空渺虛蕩之域”

9) 「新谷松林口占」, 「法泉精舍偶吟」, 「俗離山道中」, 「輓韓仲澄」이 전한다.

10) 윤재승, 『『山中日記』로 본 朝鮮後期 佛教狀況』,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오주학,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중구, 「丁時翰의 『山中日記』를 통해 본 當代人的 遊山文化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상영, 「愚潭 丁時翰의 生涯와 『山中日記』 內容 分析」, 『중앙승가대학논문집』 6집, 중앙승가대학교, 1997.; 조기영,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생애와 사상 ; 우담 정시한의

술을 재언급 하자면, 『실록』에서는 정시한의 지극한 효성[篤孝] 외에 그의 산수에호[喜山水]에 대해서도 짚고 있는데 곧 “산수를 좋아하여 팔방에 두루 다녔다.[喜山水通遊八方]”는 기록이다. 정시한은 만년에 모두 네 차례의 산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산행의 기록이 『산중일기』 속에 상세하게 담겨 있다.

평생을 원주 법천을 근거지로 하여 살았던 인물, 강원도 원주를 제2의 고향 삼아 살았던 인물인 우담 정시한을 새삼스레 경남 함양지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산중일기』에 담겨 있는 네 차례의 산행 중에 1차 여행에 집중한 결과이다. 정시한의 나이 예순 두 살 때 행해진 이 여행은 1686년 3월 13일 원주 법천을 출발하여 속리산·지리산·덕유산 등을 거쳐 이듬해 1월 22일에 귀가할 때까지 333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가 떠난 여행 중 가장 긴 기간에 해당되는 이 여행에 대한 하루하루의 기록이 『산중일기』에 담겨 있는데 그 중 1686년 4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여의 기간을[윤4월 포함] 경남 함양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¹¹⁾

본고에서는 정시한의 『山中日記』¹²⁾를 중심 텍스트로 하여, 정시한이 山水癖을 갖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함양 체류 기록을 발췌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시한에게 함양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문학에 나타난 세계관, 『한국철학논집』 2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이경순, 「1688년 丁時翰의 八公山 유람」, 『역사와 경계』 69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 등이 있으며 선행연구의 정리 및 한계점은 오주학의 논문예(p.2.) 상세하다.

11) 7월 27일부터 8월 24일의 한 달은 구례·하동·남원 지역을 유람하였기에 논외로 한다.

12) 『愚潭集』은 목판본과 필사본의 두 종류가 있다. 목판본에 비해 필사본이 조금 더 상세한데 『山中日記』는 이 중 필사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II. 丁時翰 遊山愛好의 背景¹³⁾

본고는 『山中日記』 상·하권에 담겨 있는 네 차례, 578일의 여정 중 함양 지역의 기록만을 발췌하여 정시한에게 있어서 함양 체류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우선, 정시한 遊山愛好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에부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하였다.¹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산을 유람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긴[登泰山而小天下]’ 것을 본받아 정신적 지향을 높게 하는 것이며, 하나는 선계에서 노닐며 탈속적 정취를 즐기는 것이다. 전자는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시야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었을 때 불화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흥금을 蕩滌하여 속세의 티끌을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이처럼 산이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애호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시한은 그 애호 양상이 유독 강한 편이었다. 앞 장에서 『실록』에서도 그를 품평할 때 山水癖을 빼놓지 않았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문인들의 기록에서 보이는 증언은 한층 더 구체적이다. 趙宇鳴(?~?)의 글을 살펴본다.

아! 성대하도다! 선생의 산수를 좋아함이여! 이름난 산들을 두루 다녔는데, 만년에 단양 龜潭峯의 빼어난 경치를 특별히 좋아하여 그곳에 떠 집을 짓고 오고 가며 쉬는 장소로 삼았다. 또한 원주 法泉에 우거하였으니, 이 또한 산수가 좋은 마을이었다. 항상 온화한 바람과 밝은 달을 만나면 지팡이 하나 짚고 이리저리 거닐거나 작은 배로 한가롭게 노닐기도 하였으니 참다운 즐거움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가롭게 완상하면서 속세 밖에서 방랑하는 사람들과 비교될

13) 본 장을 작성하는 데에 오주학과 조기영의 논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14) 『論語』, 「雍也」, “知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

15) 최석기, 「함양 지역 사대부들의 지리산 유람록에 나타난 정신세계」, 『지리산과 유람문학』, 보고서, 2013, p.57.

바가 아니다.¹⁶⁾

살 곳을 정할 때에도 좋은 경치가卜居의 우선 조건이었으니, 遊賞客들의 일시적인 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바쁜 척하면서 한가함을 흠치는 偷閒이나 경치에 매료되어 정신없이 좋아하는 翫景, 정처 없이 승경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放浪이나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즐기는 煙霞의 무리는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¹⁷⁾

그렇다면 정시한은 왜 遊山愛好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 산행이라는 것이 정시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가 이렇게 한평생 遊山으로 일삼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의 遊山愛好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宦路를 떠난 참된 즐거움을 自得하는 삶

관료생활을 지향하는 出과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處라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은 문인들에게 공존해있는 것이다.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은 관직에 있을 때는 處에 대한 회구로, 전원생활을 하면서는 出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문인들의 시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며, 그들의 作詩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시를 짓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해소를 이루기도 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정시한은 평생 出仕하지 않았고, 出·處 중에서 處의 방식을

16) 趙宇鳴, 『愚潭集』 卷10, 「言行聞見錄」, p.382a, “嗚呼盛哉 先生雅好山水 遍遊諸名山 晚好龜潭奇勝 構一茅屋 以爲往來棲息之所 而所居法泉 亦山水鄉也 每值風和景明 或一筇逍遙 輕舸容與 可見自得之真樂 而非非偷閒翫景放浪煙霞之比也”

17) 조기영, 앞의 논문, p.119. 참조.

18) 拙稿, 「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研究 -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 -」, 『漢文古典研究』 第12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p.164. 참조.

평생 고수한 인물이다. 현전하는 그의 글 어느 곳에서도 仕宦을 향한 갈 등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시한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가 집안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부친의 권유를 받아들여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과거제의 폐단과 수시로 편당 짓는 정치판을 목도하고는 곧바로 벼슬길을 단념해 버린다. 올곧은 그의 성정으로 는 이러한 분위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선생이 근래 과거의 폐단에 대한 이야기에 말미암아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과거제도를 설치한 뒤로 어찌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는가? 진실로 한심하다. 처음에 과거제도를 세운 본래의 뜻이 어찌 중대하고 엄밀하지 않았던가? 初試는 그 문예를 살피고, 再試는 경학으로 그 학술을 살펴보았으니, 본래 문예와 학술을 겸비한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른바 문장을 짓는 사람[製述]은 그저 경박하고 화려함만 숭상하고, 이른바 경학을 하는 사람[經學]은 다만 구두[句讀]만 숭상한다.”라고 하였다.¹⁹⁾

신이 삼가 헤아려보건대, 조정이 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偏黨’ 두 글자에서 비롯된 것이니 진실로 편당을 버리면 조정은 절로 바르게 되어 백 가지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편당짓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은 바르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편당 짓는 일로 인한 재앙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²⁰⁾

두 글을 통해 당시 정치·사회를 향한 정시한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실망은 宦路에의 단념을 가져왔으며, 出·處간 갈림

19) 黃壽一, 『愚潭集』, 『附錄』, 『龜潭語錄』, p.399a, “先生因說近來科舉之弊曰 我國設科之後 豈有如此之時哉 誠可寒心 當初立科之本意 豈不重且密哉 初試以觀其文藝 再試以經學 觀其學術 本欲得文藝學術兼備之人 而今也不然 所謂製述者 徒向其浮華 所謂經學者 徒向其句讀”

20) 丁時翰, 『愚潭集』 卷2, 『辭進善兼陳所懷六條疏』, p.207a, “臣竊觀朝廷之所以不正者 皆源於偏黨二字上出來 誠以偏黨既除 則朝廷自正 而百弊可祛 偏黨不止 則朝廷無可正之日 而國隨以亡 偏黨之禍 尚忍言哉”

길에서 處士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선생은 처음에 門蔭으로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연로하시다는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러서 앞길이 한창 열리는 듯하였으나, 헛된 이름이 성은을 그르칠 것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였다.²¹⁾

결국 정시한은 부친 봉양을 이유로 열여섯 차례 제수 받은 관직을 모두 사양하는데, 그의 문집에 전하는 무수한 사직소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간곡히 관직을 사양하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²²⁾

정시한은 당시 과거제도와 봉당정치의 폐해 등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에게 벼슬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부친의 과직 후 시작된 은거생활을 통해 산수자연과 교감하는 것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만년에 그가 遊山에 심취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정시한은 문인 趙沆(1659~?)과의 대화에서 遊山을 통해 “속세에 얽혀있는 것들을 것을 끊어 버리고자 한다.[吾於山中 謝絕纏繞]”²³⁾라고 밝히고 있는데 역시 통하는 언급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그가 평생 우거했던 원주 법천에서 37세에 지은 시이다.

茅齋睡覺整冠裾	초가집에서 자다가 깨서 갓과 옷을 단정히 하니
風度疏松月蔭階	바람이 성긴 솔밭에서 불고 달이 섬돌을 비추네
三十七年和醉夢	서른일곱 해를 술에 취해 꿈꾼 듯이 살아오다가
惺惺今夜聞晨鷄	맑게 깨인 오늘밤에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었네 ²⁴⁾

21) 趙沆, 『愚潭集』 卷10, 『言行聞見錄』, p.382a, “先生初以門蔭筮仕 而爲其親老不就 及後旌招屢下 進塗方闢 深懼虛名誤恩 似若無所自容”

22) 모두 33편의 사직소가 『우담집』에 실려 전한다.

23) 趙沆, 『愚潭集』, 『附錄』, 『敘述』, p.387d.

24) 丁時翰, 『愚潭集』 卷1, 『法泉精舍偶吟』, p.194a.

정시한은 25세 때 원주에 터를 잡은 뒤, 부친의 임소를 따라 삼척·춘천 등으로 옮겨 다닌다. 그러다가 32세에 부친이 강원도 관찰사에서 과직되자 다시 원주 법천으로 돌아오는데 그 때부터 주근거리를 원주로 삼았다. 위 시는 그가 원주 법천에 정착한지 5년쯤 지난 후 지은 것이다. “서른일곱의 해가 술에 취한 듯하다[三十七年和醉夢]”는 표현에서 과거 공부를 했던 20대, 부친의 임소를 따라 이리저리 다녔던 30대를 모두 헛된 시간들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른일곱이라는 나이는 정시한이 장남 정도원을 잃은 해이기도 하다. 속세에서의 삶이 한층 더 덧없게 여겨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結句, “맑게 깨인 오늘밤에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었네[惺惺今夜聞晨鷄]”를 통해 정시한이 벼슬길을 완전히 단념하고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만 힘쓰기로 마음을 다잡은 시기가 이 무렵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

2. 心身 疲勞의 解消

평생 벼슬길을 마다했던 정시한과는 달리 그의 아들은 과거공부를 하여 급제하는데,²⁵⁾ 정시한 나이 서른여섯 살 때의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영달의 길을 피해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급제 소식은 반가웠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정시한은 그 출중한 아들 둘을 연달아 병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된다. 서른일곱의 젊은 나이에 장남 丁道元이 먼저 죽고 다음 해에 차남 丁道謙마저 잃은 것이다.

저는 젊어서부터 피를 토하는 병증을 앓아서 氣血이 虛하고 손상되었는데, **연이어 슬하의 자식을 잃는 참혹함을 만나 마음의 병이 크게 도져 말은 일을 망쳐 놓은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오십 이후에는 또한 온몸에 고름이 차고 종기를 앓은 병증을 얻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고생했는데, 매

25) 丁道元·丁道謙·丁道晉·丁道恒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1660년 增廣試에 丁道元[21세]과 丁道謙[18세]의 급제 사실이 보인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번 미친 듯 빨리 달려 **봉우리나 산꼭대기에 오른 이후에야 心火가 조금 가라앉고 비로소 回生할 수 있었습니다.**²⁶⁾

사직을 청하는 다른 상소문에서도 정시한은 “저는 젊어서부터 피를 토하는 병증을 앓아서 정신과 근력이 보통사람들 같지 못했습니다.”²⁷⁾라고 고백하고 있다. 물론 관직을 사양하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인 조연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시한이 젊은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것 같다.

어려서부터 태양의 기운이 있어 지나치게 스스로 구속하고 자주 이치에 거슬리는 근심을 만나면 더욱 속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火根이 있어 종기 증세로 드러났다.²⁸⁾

중국 漢나라의 名醫, 張仲景의 『傷寒論』²⁹⁾을 보면 태양병의 주 증상으로 오한, 발열, 신체 통증, 맥이 빠르고 가슴이 답답함[脈促胸滿]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시한은 날 때부터 감정과 움직임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태양병을 앓았던 셈이다. 보통 태양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적 스트레스에 약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³⁰⁾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태양병을 앓고 있던 정시한에게 두 아들의 연이은 요절은 특히 심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마음병이 한층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26) 丁時翰, 『愚潭集』 卷2, 「辭進善兼陳所懷六條疏」, p.225d, “臣少患吐血之證 氣血虛損 連遭膝下之慘 心恙大發 觸事顛妄 不類平人 五十以後 又得遍身痒濃之證 以至於今 逐年作苦 每每狂奔疾走 寘身於高峯絕頂而後 心火稍降 始得回生“

27) 丁時翰, 『愚潭集』 卷1, 「辭持平疏[第二疏]」, p.195a, “臣少患吐血之證 精神筋力 已不如常人”

28) 趙沆, 『愚潭集』, 『附錄』, 「敘述」, p.387d, “先生少有太陽之氣 而過自拘束 屢遭逆理之感 而強加含忍 遂有火根而發諸癢證”

29) 장중경 저·지시일 편역, 『상한론』, 행림서원, 2004.

30) 광주신창생한의원 칼럼(<http://blog.naver.com/zirzido/70184729184>) 참조.

그럴 때, 遊山은 마음병을 얻어 지친 心身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소에서 遊山을 통해 ‘마음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몸에 기이한 병이 있었는데 중간에 연달아 (아들이) 죽는 참혹함을 만나니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려서 오히려 가족들의 도움에 기대게 되었다. 그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슬피 탄식하고 애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60세 이후에 때때로 산 속으로 찾아가서 정신을 수습하고 성리학 책들을 열람하였다.** (후략)³¹⁾

정시한은 자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Healing]하려는 의도를 지녔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태양병과 두 자식의 연이은 요절을 겪으며 생긴 우울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遊山은 좋은 치료책이었던 것이다. 특히 부모 봉양을 책임지기 위해 긴장하던 젊은 날에는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슬픔은 兩親을 모두 잃고 난 만년에 와서 그 무게감을 더하게 된다.³²⁾ 이것이 정시한이 예순이 넘는 나이에 본격적으로 遊山을 즐기게 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學問 修養에의 精進

대부분의 선비들에게 자연[山]이 갖는 의미가 그러했듯 정시한에게도 자연은 학문 도야와 심성 수양을 위한 공간이었다.

31) 丁時翰, 『愚潭集』 卷9, 「自警」, p.373c, “**且身有奇疾 中間連遭喪慘 全然放倒 尙賴家庭提誨之力 一念時或醒覺 則未嘗不悵然嗟悼 六十以後 時住山中 收拾精神 披覽性理之書**”

32) 우담의 행장에도 “아들을 잃고 몹시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참아왔지만 늙어서는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아파 병이 되어 산행을 결심하였다.[沈余喪子 堅忍至痛 至老心常鬱抑 瘡癢爲病 未必不原於此 吾行已決 汝等不我禁也 遂治任啓程]”고 적혀 있다. (趙宇鳴, 『愚潭集(筆寫本)』 卷13, 「行狀」.; 오주학, 앞의 논문, p.13.에서 재인용.)

내가 산을 유람할 적에는 마치 집안 뜰 사이를 걷는 것처럼 하고 걸음걸이를 재촉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를 수 있었다. 내가 책을 읽을 적에는 마치 성현의 가르침을 듣는 것처럼 하고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다.³³⁾

위 글에서 정시한은 산을 유람하는 것[遊山]과 책을 읽는 것[讀書]을 서로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다룰 함양 지방에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정시한 여행 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기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경치를 만나면 장기간 머무르고³⁴⁾, 몸이 아프면 일정을 수시로 포기했으며³⁵⁾, 환경이 열악해지면 급히 공간을 옮기기도 한다³⁶⁾.

이처럼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逍遙하는 자신의 유람 방식을 자신의 독서 방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즉, 多讀과 速讀의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산중일기』의 내용을 일람하면, 정시한은 여행 중에 적지 않은 책을 읽었다. 물론, 산수유람 중에 책을 지니고 가서 읽는 것은 당시 선비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시한에게 산중독서는 학문탐구를 넘어서서 병을

33) 趙沆, 『愚潭集』, 『附錄』, 「敘述」, p.387d, “吾於遊山 如履戶庭之間 無促行之意 故能致遠 吾於讀書 如聞聖賢之教 無貪多之意 故能持久”

34)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19日條」, “실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게 전부터 바래오던 곳이다. 오래 머물러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實愜所望 仍爲久留之計]” 이하의 번역은 국역 『산중일기』(신대현 번역주석, 해안, 2005)를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35)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29日條」, “오후에 기운이 불편하므로 낮이지만 자리에 누웠다.[午後氣不平 晝寢]”

36) 丁時翰, 『山中日記』, 「7月 13日條」, “앉은 자리가 흔들렸다. 심장이 두근거리려 곧바로 비를 맞아가며 옮기려 했으나 절의 스님이 굳이 만류하였다. 그러나 뿌리치고 옷과 신이 모두 젖은 채로 오향대암의 명학 스님에게 갔으나 역시 그냥 있으라고 말린다. 다시 그 말을 듣지 않고 금강대암으로 갔더니 스님이 맞아주었다.[掀動坐席 心悸即 冒雨移來 菴僧牽挽告止 而不聽 沾濕衣襖 過五香臺明學 亦告止 不聽 至金剛臺菴 僧迎接]”

치료하는 수단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함양 체류 기록에서 적지 않은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바, 뒤의 장에서 다시 서술하도록 한다. 즉, 정시한에게 있어서 遊山은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길이었으며, 산중 독서를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잡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Ⅲ. 咸陽 滯留 期間이 갖는 意味

이상의 이유로 정시한은 山을 사랑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산들을 두루 유람하게 된다. 『山中日記』에는 정시한이 만년에 3년여에 걸쳐 다녔던 네 차례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물론 그가 이 시기에만 유람을 즐겼던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부친이 임소를 仁川·淮陽·安東·三陟 등으로 옮길 때마다 따라 다니면서 근처의 산에 올랐으며, 특히 회양에서는 금강산을 유람하고서는 우리나라 산수를 두루 돌아보고자 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24세 때 金剛山, 27세 때 삼척의 中臺山, 52세 때 俗離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연보를 통해 보이며 『山中日記』의 여행 이후에도 1689년부터 1694년에 걸쳐 5년 더 전국을 유람하였다고 한다.³⁷⁾

[표 1] 『山中日記』에 전하는 여행 기록

차수	기 간	지 역
1차	1686년 3월 13일 ~ 1687년 1월 23일	속리산, 지리산 일대
2차	1687년 3월 8일 ~ 1687년 3월 17일	치악산
3차	1687년 8월 2일 ~ 1687년 10월 20일	금강산 일대
4차	1688년 4월 10일 ~ 1688년 9월 19일	영남지역

37) 1689년에는 백운동서원, 부석사, 풍산 병산서원 및 하회, 1690년에는 청량산, 태백산, 1691년에는 미륵산, 남한산성, 송도, 감로사 천마산성, 1692년에는 영월 육신사, 풍기 쌍악사, 용문사, 1693년에는 월악산, 1694년에는 이천 등지를 유람하였다.(오주학, 앞의 논문, p.12. 참조.)

평생을 산을 사랑해온 정시한이기 때문에, 遊山은 정시한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山中日記』라는 기록이 없었다면 그의 山水癖 양상을 전혀 엿보지 못했을 것이다.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전혀 없는 정시한에게 있어서 하루도 빠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일기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여행은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장기간 여행을 떠난 것이며, 거의 1년여[333일]의 기간 동안 하루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일기는 그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본 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함양 체류 기록은 그 중 절반에 해당되는 5개월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시한은 왜 건장한 젊은 시절을 놓아두고 예순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장기 여행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그 답은 지극한 효성으로 일관한 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관직으로 대표되는 속세의 끈을 이룬 시기에 놓아버린 정시한에게도 속세와 그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事親’의 의무였다.

조언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받들던 날에는 집안 물건을 배치하고 포열함에 질서정연하고 화려사치하지 않음이 없었거늘, 한 구역의 산림 생활조차 마치 세상과 헤어진 것처럼 하여 지금 황폐해져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는 아버이를 위해 경치 감상할 곳을 만들었으나, 지금 내가 부모님을 잃고 또 산수를 즐기는 벽이 있어서 다시는 사는 곳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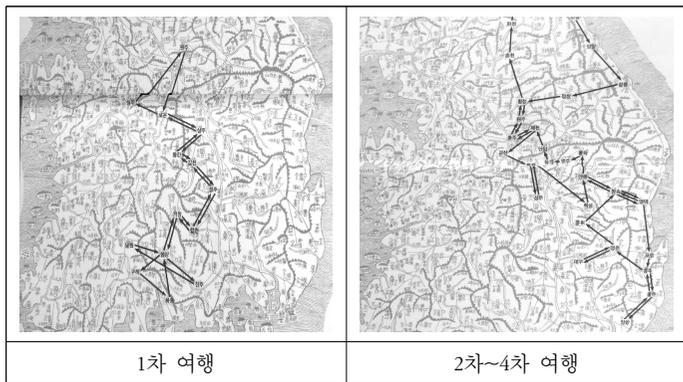
복이 끝나자 마침내 산천을 두루 유람할 뜻을 두어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내 나이 예순을 넘었고, 양친을 여의었으니 부모를 모시는 일도 대략 마쳤다. 만약 다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쓸데없는 일에 골몰한다면 거의 나의 일생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책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 너희들은 나를 막지 말라” 하였다.³⁹⁾

38) 趙沆, 『愚潭集』, 『附錄』, 「敘述」, p.387d, “沈曰 先生在待奉之日 排置布列 莫不井井華侈 一區林居 有若別乾坤 今乃荒廢 無復舊時容矣 先生曰 向也爲親 得致賞翫 今我孤露而且癖在山水 不復區區於居處矣”

宦路를 완전히 단념하고, 자식을 연이어 먼저 보내는 등 정시한에게 30대의 젊은 시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복잡한 마음을 떨쳐내고 모든 속세와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당장의 마음을 잡아두었던 것은 양친을 향한 지극한 효성이었다. 정시한은 48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59세에 모친상을 겪을 때까지 事親의 의무를 다하였다. 효성이 지극했던 정시한은 몸이 허약했던 부친이 지방에서 임소를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봉양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머니 곁에서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 그가 모친상을 겪고 3년 상까지 모두 마친 나이가 바로 예순 둘이다. 즉, 부모님을 모시느라 참아왔던 遊山 욕구를 이 나이가 되어서야 표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山中日記』 텍스트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정시한이 본격적인 遊山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첫 장기 체류지로 선택했던 지역, 함양 지방이 정시한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山中日記』에 전하는 여행 경로



39) 『愚潭集』 卷11, 『附錄』, 「年譜」, p.406a, “至是服闋 遂有周覽山川之意 謂子孫輩曰 吾年踰六十 永辭二親 先事又粗舉 若復眷戀兒曹 汨沒冗務 則幾負我一生 無寧携書入山 從吾所樂 汝輩勿我止也”

『山中日記』에 실려 있는 1차에서 4차 여행의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⁴⁰⁾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지역은 上行과 下行, 한, 두 차례 오가며 머물렀던 것에 반해, 함양에서만 유독 함양을 중심 근거지로 잡고 인근지역을 오가는 형식으로 머무른 정황이 보인다. 이것은 함양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정시한에게 있어서 함양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지역-오래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함양이었는가? 정시한에게 5개월여 동안 함양 체류 기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1. 山水自然과의 交感

함양읍은 더욱 살만 해서 커다란 내가 읍을 빙 둘러 흐르고 있어 수목이 그늘을 이루고 있으며, 읍성 안팎의 울타리는 서로 이어져 있었다.⁴¹⁾

4월 11일 거창을 출발하여 함양에 첫 발을 들여놓은 정시한은 함양읍에 있는 金厚達의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함양 여행을 시작한다. 위의 글은 정시한의 눈에 비친 함양의 첫 인상이다. 산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을 풍경, 나무들은 무성하고 울타리는 오래 묵은 편안한 느낌의 광경이다. 이곳에 매료된 정시한은 이후 함양을 여행의 중심으로 잡고, 경로 그림처럼 인근의 진주·남원·구례·하동을 넘나들며 반 년 가량을 함양에서 체류한다. 특히 지리산의 금류동암에서 약 3개월(윤4월 19일~7월 12일), 금강대암에서 2주가량(7월 13일~7월 26일)을 장기 체류하였다.

40) 신대현 번역·주석의 『산중일기』 내부표지에서 인용.

41) 丁時翰, 『山中日記』, 「4月 11日條」, “咸陽邑 居尤盛 大川環繞 樹木成陰 城內外 籬落相接”

지녁식사 뒤 상무주암으로 올라갔다. 바람에 걸려 있는 석벽을 온 힘을 다해 올라가 5리쯤을 갔다. 열 걸음에 한 번 쉬는 식으로 올라가 겨우 도착해 동대 위에서 앉아 쉬었다. 바라보니 지리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져 있는 가운데 주산의 석봉은 기괴하여 무어라 표현하기 힘들다. 서쪽 가에 석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단물이 솟아오른다. 절터는 만길 높은 곳에 있지만 평온하고 남향이라서 정말로 명당이라 할 만 했다. 이곳에서 여름을 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⁴²⁾

수백보를 걸어 금류동암에 도착했다. 계곡 주변에는 폭포가 흐르는데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맑은 기운도 가득하다. 암자 건물은 정묘하기는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서 있어서 찾아오는 승려나 일반인이 드물다고 한다. 여기에 있더니 실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게 전부터 아래오던 곳이다. 오래 머물러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⁴³⁾

지리산의 상무주암과 금류동암을 묘사한 글이다. 『산중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네 차례의 여행 기간 중 세 차례 가량 정시한이 장기 체류한 지역들이 보인다. 1차 기행에서 5개월을 머무른 지리산 함양과 충북 보은의 속리산 주변(4개월), 그리고 4차 영남 기행에의 대구 東華寺 주위 암자(2개월)를 꼽을 수 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기간들은 공통적으로 여행하기 좋지 못한 기후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한여름 또는 한겨울이었던 것이다. 예순 둘이라는 늦은 나이에 유람을 시작한 정시한에게 무더위와 혹한은 여행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었다. 이로 인해 여름과 겨울 기간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면서 더위와 추위를 피했으며⁴⁴⁾ 그 오래 머무를 장소로 자연과 교감하기에 최적의 장소, 즉 오

42) 丁時翰, 『山中日記』, 「4月 19日條」, “夕齋後 上上無主 懸崖石壁 極力攀躋 行五里許 十步一休 董董得達 坐憩東臺石上 平看智異諸峯 羅列望中 主山石峯 奇怪不可名狀 西邊 石井甘冽 寺基處於萬仞高山 而平穩向陽 眞明堂之地 定欲過夏於此”

43)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19日條」, “行數百步 至金流洞菴 洞府深邃 瀑流鏘鏘 清氣藹然 菴舍精妙 而幽僻特甚 遊客僧俗 罕有往來 實愜所望 仍爲久留之計”

44) 오주학, 앞의 논문, p.27. 참조.

래 머물러 있어도 싫증나지 않을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다. 경남 함양 지역 역시 정시한에게는 그러한 장소였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정시한은 이곳에서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수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특히 3개월을 체류한 금류동암은 산수의 빼어난 경치뿐만이 아니라 ‘인적도 드문 곳’이었다.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자연의 소리만을 벗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최적의 피서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內面 傷處를 直視

앞에서 정시한의 遊山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하려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시한은 함양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三男 丁道旻의 심상치 않은 병환이다.

아침식사 뒤 삼일암에 가려고 나섰다. 누에 올라가 바위 사이로 나있는 돌길을 바라보니 태남이와 입이 등이 짐을 지고 오므로 나가 맞았다. 짐 소식을 물어보니 (아들) 정도진의 병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므로 심장과 간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다. 아침 식사 한 것도 목에 걸린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로 반석에 내려가 혹은 건너 혹은 앉거나 하며 오랫동안 있다가 암자에 돌아왔다. (중략) 멍한 상태로 마음 둘 곳을 몰라 하루 종일 바보처럼 앉아만 있었다. (중략) 마음이 편치 않고 눈에 화기가 올라 잘 보이지가 않았다.⁴⁵⁾

집에서 온 반가운 심부름꾼을 통해 짐 소식을 들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우환이 생긴 것이다. 슬하에 둔 4남 1녀를 중 이미 장남과 차남을

45)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27日條」, “朝齋後 欲往三日菴出步 空樓望巖 間石路 太男立伊等 擔負而來迎 問家間消息 知晉病漸劇 心膽墮落 朝食塞咽 觀書畢 卽下盤石 或步或坐 良久還菴 … 心事懨懨 不知所處 癡坐終日 … 心事不平 火上眼昏”

왔을 정시한인데 셋째 아들마저 아프다는 것이다. 양친을 모두 여의고 나서야 젊은 시절 잃었던 두 아들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놓고 표출하기 시작했던 정시한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셋째 아들의 질병은 큰 좌절이었을 것이다.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연이어 기록된 일기들의 내용을 통해 정시한의 깊은 愁心을 엿볼 수 있다.

편지를 썼다. 눈이 어둡고 기운이 몹시 피로하다.⁴⁶⁾

밤에 잠을 편하게 자기 못했다. (중략) 오후에 기운이 불편하므로 낮이지만 자리에 누웠다.⁴⁷⁾

기운이 여전히 편치 않아 아직 해가지지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⁴⁸⁾

집에서 온 편지를 (다시) 보았다. 화기가 눈까지 올라와 아프다.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진다.⁴⁹⁾

이렇게 여러 날을 마음병을 앓았던 정시한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때 마음을 치료할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독서 치유법’이다. 즉, 독서에 몰입하여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마음의 슬픔을 달래고자 한 것이다. 『山中日記』에 실려 있는 1차 기행을 살펴보면 5월 초하루 이후부터 매일 읽은 책들을 일기 속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정도진의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던 듯이 보인다. 집으로부터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셋째 아들의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46)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28日條」, “修書 眼昏氣倦”

47)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29日條」, “夜不能安眠 … 午後 氣不平 晝寢”

48)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30日條」, “氣不平 日未沒寢”

49) 丁時翰, 『山中日記』, 「5月 1日條」, “自見鄉書 火上眼痛 氣日益不平”

다 어김없이 다시 꼬꾸라져 앓아눕곤 하는 연속적인 기록은 진한 부성애를 느끼게 해준다. 다음은 정도진의 병환 소식을 처음 들은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의 기록이다.

입이와 함양 관아에서 보낸 하인, 그리고 안국사의 스님 두 분이 왔는데 집에서 온 편지와 함양 수령이 보낸 편지를 전해왔다. 읽어보니 진이의 병은 위험한 지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한다. 심사가 편치 않아 밤에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다.⁵⁰⁾

『山中日記』의 기록을 보면 대략 1달 간격으로 정시한은 집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나 달이 바뀌어 7월이 되었는데도 집에서부터 편지가 오지 않자 정시한은 애가 탄다. 아픈 아들 소식이 떨어져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⁵¹⁾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가 7월 5일에 드디어 도착한다. 그러나 아들의 완쾌 소식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정도진의 병환에는 차도가 없었던 것 같다.

집에서 부친 글을 읽으니 진이가 아직 위험한 지경에서 못 벗어났다 하므로 심사가 편치 못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⁵²⁾

석 달이 지나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셋째 아들의 소식에서 정시한은 장남과 차남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편지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얻지 못한 정시한은 다시 앓아눕는다.

50) 丁時翰, 『山中日記』, 「5月 25日條」, “立伊及咸陽下人 安國兩僧人來 傳鄉書及咸倅書 聞晉兒病 尚不移危境云 心事不安 夜不能安寢”

51) 丁時翰, 『山中日記』, 「7月 1日條」, “집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지 않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待家便 不來 心不平]”

52) 丁時翰, 『山中日記』, 「7月 5日條」, “見家鄉書 則晉子之病 未離危境 心事不平 夜不安眠”

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앉아 읽다가 놀라 정신이 달아날 지경이었다.⁵³⁾

오후가 되어서는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으므로 급히 밥을 먹고 온돌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⁵⁴⁾

심사가 편치 않아 밤에 잠을 편하게 이루지 못했다.⁵⁵⁾

함양 지역 이전의 기록에서는 4월 초 감기 몸살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기록⁵⁶⁾ 외에 이렇게 급격히 체력이 방전되어 버린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함양을 떠나서 귀가할 때까지의 나머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비슷한 기후 조건 하에 있었던 4차 여행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특히 함양을 떠날 무렵인 8월 29일 四男 丁道恒이 다른 일로 내려왔다가 아버지를 따라 한 달간 여행을 함께 하는데⁵⁷⁾ 이 한 달간의 기록을 보면 문면에 생기가 가득하며, 일기의 편폭 또한 상당히 길다. 이에 비해 함양 체류기간의 기록은 일기의 양도 적으며, 인용문에서처럼 勞心焦思하는 마음 상태를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발이 묶이고, 그로 인해 단조로운 일상을 보낸 것도 기록의 소략함에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셋째 아들의 병환 소식 역시 여행의 흥을 앗아간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53) 丁時翰, 『山中日記』, 「7月 6日條」, “坐看鄉書 魂驚魄爽”

54) 丁時翰, 『山中日記』, 「7月 7日條」, “午後 身戰氣眩 殆不省事 急饋米食 臥於溫煖良久”

55) 丁時翰, 『山中日記』, 「7月 9日條」, “心事不平 夜不安寢”

56) 丁時翰, 『山中日記』, 「4月 14日條」,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운이 몹시 빠져 있다. 며칠 전부터 감기몸살에 걸린 탓인데 몸이 평소 같지가 않다. [穩寢朝起 則氣頗蘇 槩自數日前 有感冒之候 故體不如常]”

57) 8월 29일 기록에 “어두워질 무렵에 아들 도항이가 온양에서부터 왔는데 이번 21일에 손자 경신이의 혼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이곳 실상사에 온 것이다. [向昏 道恒 自溫陽行 敬慎孫婚禮 於今二十一日後 直來于此至實相寺]”라는 기록이 있으며, 9월 24일 기록에 “아들 도항이는 입을 데리고 원주로 돌아갔다. [恒子率吏奴 還去原州]”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가 정시한에게는 長男과 次男을 잃은 마음까지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곧 심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또는 ‘자식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서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것이었다.

3. 讀書治癒法の 發見

문득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병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힘써 기운을 내야겠다 싶어 회재의 『원조오잠』 및 『입잠』 여러 편, 그리고 『선경』 여러 장을 읽었다. 또 김생체로 백여 글자를 썼다.⁵⁸⁾

물론, 정도진의 소식을 듣기 전의 기록에서도 독서를 하고 있다는 기록은 보인다.⁵⁹⁾ 그러나 매일 독서한 서명과 그 진도를 적기를 정례화 한 것은 위의 글 5월 1일부터였으며, 그것은 정도진의 병환 소식을 듣고 한 차례 앓아누운 직후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상 외로 셋째 아들의 증세가 오래도록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시한은 매일 마음을 풀이하며 편안하지 못한 생활을 지속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이것이 어지러움증 등 여러 가지 증세로 드러나자 이것에 위기감을 갖게 된 정시한은 ‘독서’의 수단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쇠약해진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산중일기』에 전하는 함양의 기록 중에서 셋째 아들 정도진의 병환 소식을 들은 직후인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록에서 나흘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구체적인 독서의 양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함양 지역을 정시한에게 있어서 讀書 修鍊의 空間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다. 독서기

58) 丁時翰, 『山中日記』, 「5月 1日條」, “忽自思 心慮不平 故病將生 遂自強讀 晦齋元朝五箴及立箴數編 觀仙經數丈 書金生體百餘字”

59) 丁時翰, 『山中日記』, 「閏4月 26日條」, 참조.

록은 8월 15일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다가 酷寒을 피해 4개월가량 머물렀던 속리산의 기록에서 다시 시작한다.⁶⁰⁾ 심신의 회복과 우울감을 털기 위해 시작했던 독서는 여행하기 쉽지 않은 날씨로 인해 실내에 발이 묶인 작자의 무료함을 달래줄 도구로도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행하기 좋은 봄·가을에는 산수 유람을 주로 하고, 날씨가 좋지 못한 한여름·한겨울에는 한 곳에 머물러 독서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던 것이다.⁶¹⁾

[표 2] 함양 체류 시 일별 독서표

일시	내용
5월 1일	『元朝五箴』 & 『立箴』, 『仙經』
5월 2일~8일	『箴銘』, 『仙經』
5월 9일~6월 27일	『心經』, 『仙經』
6월 28일~7월 5일	『心經』, 『讀書錄』, 『黃庭經』, 『群仙要語』, 『道藏抄』 ⁶²⁾
7월 7일~8월 14일	『心經』, 『發揮心經』, 『讀書錄』, 『黃庭經』, 『續選』 ⁶³⁾

함양 체류 기간 동안 정시한이 접한 책들의 목록을 대략적으로 훑어볼 때 모두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箴銘』은 여러 선인들이 자신과 삶을 위한 지침이자 경계로 삼는 글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程頤의 「視箴」과 「安樂齋銘」, 眞德秀의 「夜氣箴」, 吳幼의 「清理一箴」, 呂與叔의 「克己箴」과 「草廬自信銘」의 편명을 언급되어 있다.⁶⁴⁾

60) 丁時翰, 『山中日記』, 「10月 19日條」. 참조.

61) 여행 기간에 비해 避暑, 避寒의 기간의 기록은 하루의 일기 양이 상당히 적다.

62) 『群仙要語』는 7월 2일에 완독한 듯 하며, 『道藏抄』는 7월 4일 하루 간 읽었다.

63) 번갈아 가며 다섯 책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18일, 19일 양일을 제외한 모든 일기에 독서 기록이 실려 있다.

64) 丁時翰, 『山中日記』, 「5月 6日條」, 「5月 7日條」, 「5月 8日條」 참조.

또한 5월 26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心經』과 『仙經』을 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心經』과 『仙經』 중 한 책만 기록되어 있는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책을 매일 반복적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心經』은 宋의 眞德秀가 경전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仙經』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을 지칭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도교의 전적이었을 것이니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짐작해볼 수 있다. 심신의 피로감이 극대화 된 상태였던 정시한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로서 『心經』과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글로서 『仙經』을 선택하여 쉬지 않고 여러 차례 완독을 하였던 것이다.

IV. 맺는 말

이상을 통해 『산중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시한의 遊山愛好와 그 원인, 그리고 5개월 간 머물렀던 함양 지역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공간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정시한에게 ‘함양 지역’이 갖는 의미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연구인만큼 본 장에서는 III장의 내용을 재차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함양지역은 정시한에게 최소 세 가지 이상의 공간적 의미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셋은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의미를 만들어냈다.

우선, 함양[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인적이 드물다는 환경적 조건, 주변 지역을 넘나들기 용이하다는 지리적 조건은 함양을 산수자연과 교감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택하게 하였다.

둘째로, 함양 체류 기간에 접하게 된 셋째 아들 丁道晉의 절환 소식은 정시한이 그동안 놀려온 마음 속 깊은 곳의 슬픔을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으며, 함양 체류 기간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셋째로, 避暑를 위해 장기체류해야 하는 상황과 아들 소식으로 인해 마음병이 도진 상황은 정시한에게 함양을 독서의 장으로 만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상을 통해 避暑 혹은 避寒을 위해 한 곳에 머물면서 산수 자연과의 교감을 극대화했던 시기, 즉 정시한이 비교적 장시간 머물렀던 지리산, 속리산의 기록에서만 독서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 丁道晉과 손자 丁思愼에게 보낸 편지와 『산중일기』의 기록을 통해 정시한은 자신의 마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독서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정시한에게 있어서 함양은 힐링의 공간이자 독서 침잠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參考 文獻>

『論語』 『肅宗實錄補闕正誤』
 申益愷, 『克齋集』, 『韓國文集叢刊』 185, 한국고전번역원.
 丁時翰, 『愚潭集』, 『韓國文集叢刊』 126, 한국고전번역원.
 ———, 影印本 『山中日記』, 원주시, 2012.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 한국고전번역원.

리기용 편, 『丁時翰 性理學 研究』, 원주시, 2010.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研究 -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 -」, 『漢文古典研究』 第12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신대현 번역·주석, 『산중일기』, 해안, 2005.
 오주학,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원주시 문화관광과 편, 『愚潭 丁時翰 研究』, 원주시, 2009.
 장중경 저·지시일 편역, 『상한론』, 행림서원, 2004.
 조기영,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생애와 사상 ; 우담 정시한의 문학에 나타난 세계관」, 『한국철학논집』 2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7.
 최석기·정출현·정시열·이성혜·강정화·전병철, 『지리산과 유람문학』, 보고사, 2013.

광주신창생한의원 칼럼 (<http://blog.naver.com/zirzido/70184729184>)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고전 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Study of 『Sanjungilki (山中日記)』 of WuDam(愚潭) Jeong, Si-Han (丁時翰)
- Focused on Touristry Records of Hamyang, Gyeongsangnam-do Province -
/ Son Yoo Kyung**

WuDam (愚潭) Jeong, Si-Han(丁時翰) is a scholar of late Joseon dynasty and his family was yangban (aristocrat class) family living in Seoul for generations. Existing researches about WuDam Jeong, Si-Han have focused on his philosophical contemplation and his literary aspects have not been approached enough. This research was started from interest on 『Sanjungilki (山中日記)』, a travel literature of Jeong, and we believe the literature can diversify studies regarding Jeong, Si-Han.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eong was described as “likes mountain and water hence traveled around all different regions [喜山水遍遊八方]” and 『Sanjungilki』 is a book with intact daily records of four-time mountain traveling at his late age. Therefore, detailed analysis of this book could contribute for knowing Jeong, Si-Han’s normal life not just as a scholar but also as a writer.

This paper has looked into the meaning of ‘the place one has left’, not ‘the place one is living’ for WuDam Jeong, Si-Han.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mountain traveling for Jeong, Si-Han, who lived in Gangwon-do province for his entire life, has been investigated. For this, among the four mountain traveling described in 『Sanjungilki』, the first traveling was selected for detailed analysis. The travel, proceeded on his age of 62, was with the longest time spent among his four trips and he stayed in Hamyang region of Gyeongsangnam-do Province for six months. Therefore this paper extracted records from Hamyang region only from 『Sanjungilki』 and analyzed in depth

to find the meaning of Hamyang for Jeong, Si-Han. Moreover, the rationales of Jeong’s San-Su-Byeok (山水癖: propensity of craving for mountain and water) were contemplated through this paper.

【Key words】 propensity of craving for mountain and water[山水癖], 『Sanjungilki [山中日記]』, WuDam[愚潭], Jeong, Si-Han [丁時翰], Hamyang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curator98@hanmail.net